



11면

임실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도 수령도 집에서 OK'

전주매일

2020년 5월 20일 수요일 (음 4월 28일) 제2538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투시로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주지역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등 주택 건물주들이 19일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집세 상생 협약식'을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주시, 이번엔 '착한 집세운동' 이다

'착한 임대' 불씨... 총 33명 주택 건물주 동참
한시적 10~30% 집세인하... 총 385세대 혜택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상가의 '착한 임대운동'을 시작한 전주시가 원룸 단독주택 등 주택 세입자의 집세를 내려주는 '착한 집세운동'을 시작하고 나섰다.

19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원룸, 오피스텔,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택 건물주 33명은 코로나 19로 힘들어하는 385세대 세입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집세를 인하는 '착한 집세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상생협약에는 14명의 주택 건물주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로써 상가 임대료와 주택 집세를 내려주는 협약을 체결한 건물주는 총 213명으로, 853개 상가·주택 세입자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앞서 상가 임대료를 인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한 건물주는 180명이며, 488세대가 해당된다.

이들은 이날 상생협약을 통해 '전주발 착한 임대운동'의 확장 차원에서 '집세 인하운동'에 동참하고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날까지 상생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주택 건물주들은 3~5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10~30%의 집세를 인하해줄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이들은 더 많은 주택 건물주의 참여를 독려해 상생정신을 확산하고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기로 했다. 나아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양한 사회적 연대 활동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협약에 참여한 주택 건물주 중 대부분이 금암동과 덕진동, 효자동, 중화동, 서신동 등 다세대주택 건물주들이어서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겪은 임차인들의 가계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 같은 주택 건물주와 세입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착한 집세운동'이 '착한 임대운동'처럼 내비효과를 일으켜 전주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시는 전주지역 상가 건물주들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임대료 10% 이상을 인하는 '착한 임대운동'을 펼쳐 전주를 넘어 정부와 전국 다수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기업, 연예계, 종교계 등 모든 분야로 확산됐다. 착한 집세운동에 참여한 주택 건물주 김 모씨는 "지난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그 때 건물주 분께서 어려운 상황을 함께 하기 위해 집세를 인하여

줘 큰 힘이 됐던 경험이 있다"면서 "건물주가 되어 임차인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택 건물주 권 모씨 역시 "월세를 인하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입자와 한마음 한뜻으로 팔팔 통쳐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착한 임대료에 이어 착한 집세까지,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고통 분담과 상생 분위기 확산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마음과 마음을 잇는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의 힘으로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성기자

'도봉구 노래방 확진자 접촉' 익산 20대 감염... 도내 21번째

서울 도봉구 노래방을 다녀온 후 확진된 양성 판정자 접촉한 익산 거주 28세 남성 A씨가 코로나19에 감염됐다.

19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번 확진자 발생은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30대 남성 이후 일주일 만에 확진으로 전북지역에서 21번째 발생이다.

양성판정을 받은 A씨는 현재 개인사업자로 친구 결혼식 참석을 위해 지난 9일과 10일 경남 창원, 부산 등을

다녔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 방역당국은 A씨가 이 기간 친구인 B(28·서울 도봉구)씨를 통해 감염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지난 7일 도봉구 창일동 코인노래방을 다녀온 후 14일 확진된 서울 도봉구 13번 확진자다.

A씨는 B씨 등 친구 4명과 창원에서 만나 결혼식에 참석했으며 이후 부산 등을 이틀간 여행도 함께 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성기자

"코로나 통제 가능한 범위 등교 무작정 미룰 수 없어"

유은혜, 등교 우려 진화나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고3 등교를 하루 앞두고 "등교를 피할 수도, 시기를 무작정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시도 부교육감과 신학기 개학준비추진단 영상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등교 결정은 매우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다"면서도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상황이 통제 가능한 범위라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고3 학생들이 20일 등교한 후에는 다른 학년이 순차 등교하게 된다. 고2·중3·초1~2학년과 유치원생은 27일, 고1·중2·초3~4학년은 오는 6월 3일, 중학교 1학년과 초 5~6학년은 같은 달 8일에 학교에 갈 예정이다. 당분간 원격수업을 등교수업과 병행하게 된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 19 이후 새로운 삶의 기준을 세우고 있으며, 방역 등 '뉴노멀(new normal)'의 길을 걷고 있다"며 "학교도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해야 한다. 새로운 학교방역, 학습방법으로 학생 안전·학업·일상 세 가지 모두 지켜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이행해야 한다"고 등교 결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각 교육청에 "코로나19로 미뤄진 등교가 80일만에 시작되는 의미는 날이지만 우리 모두는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어느 때보다 긴장하고 있으며,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 대응에 따라 안전 결정되고 전체 방역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하이라인 소통 체계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고, 각 지역별 119 소방서, 보건소, 교육청, 학교 또한 협업체계를 더 긴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등교 하루 전날인 19일부터 24시간 가동되는 등교수업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복무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각 교육청도 24시간 실시간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여러분 등교가 불가피하다는 점, 집단감염 우려를 최소화



유 부총리는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확진자가 발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차분하게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태원 방문 학생 교직원 원어민 보조교사 등 57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전부 음성이라고, 검사자 모두 14일 자율격리 체계를 취했다"며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고 가을 재유행까지 언급되는 상황에서 45만명의 고3 상급학교 진학이나 사회진출을 무한정 유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확진자가 발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차분하게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특히 교사들에게 "선생님 혼자, 학교 앞에서 혼자 책임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교는 신속히 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교육청으로 상황을 알려달라"며 교육부도 즉각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심증상자 생기면 전담구급대 즉시 출동해 선별 진료소 병원 가점까지 학습 이동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가동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학생과 선생님 여러분 모두에게 (등교가) 쉽지 않은 일인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종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 번은 거처야 하는 일이다. 불편함을 잘 견디면서 함께 협력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건국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TV, D2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